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연실 · 배희분**

상명대학교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강력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칫 청소년기 자율성의 발달과 대치되거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여겨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1 청소년 발달 전반에 걸친 부모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여기에 청소년의 성별이 조절변수로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모니터링은 중1 학생들의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전화의존도 등 발달 전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력은 성별 및 성별과 모니터링간 상호작용항, 그리고 통제변수(가구연간소득, 맞벌이 여부)를 모두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비행에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남녀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의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점수는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모니터링 수준에 따른 비행 감소 기울기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모니터링 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남학생 비행이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결과에 따른 논의점과 실천적 시사점, 제언점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모니터링,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전화의존도, 성별의 조절효과

논문투고일(2017. 08. 14), 논문심사일(2017. 09. 01), 게재확정일(2017. 10. 01)

* 본 연구는 2016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e-mail: heeboon@smu.ac.kr

I. 서론

누군가를 모니터링(monitoring) 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감지된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 본인이 적절히 반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지원을 부모의 역할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편적인 부모양육 행동 중 하나이며 자녀에게는 주요한 자원이자 보호요소로 작용한다. Dishion과 McMahon(1998)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을 “자녀의 소재, 활동, 적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는 부모 양육행동의 세트”라고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감독” 또는 “지도 감독”이라는 변수명으로 사용되어 왔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자녀에게 알릴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이며 자녀에게는 안전감과 안도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Lee & Randolph, 2015). 지난 수세기 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은 자녀의 비행과 학교부적응, 인터넷 사용상의 위험을 낮추거나 완충하며(김용석, 1999; 김지혜, 정익중, 2010; 박나래, 오수정, 진미선, 백수정, 정익중, 2015; 이상균, 2008; 조운주, 2013; Kerr, Stattin, & Burk, 2010), 학업성취와 자존감, 삶의 만족 등의 긍정적 산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윤연정, 이미숙, 전춘애, 2011; 정병삼, 2010a;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구조 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감을 느끼는 동시에 나의 삶을 침해받는다 혹은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Foltz, 2011). 부모모니터링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에는 우울감이 높아지는 등 자녀들의 적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Barber, Olsen & Shagle, 1994; Wang, Pomerantz & Chen, 2007), 특히 청소년기 후기

로 갈수록 부모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개인 간 경계의 침해로 인식하기 쉽다는 연구결과들(Hawk, Hale, Raaijmakers, & Meeus, 2008; Kakihara & Tilton-Weaver, 2009; Keijsers et al., 2012; Kerr, Stattin, & Burk, 2010)은 부모 모니터링의 이중적 특성을 반영해준다.

그러나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에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Barber, Olsen & Shagle, 1994; Seligman, 1991)은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의 연구에서는 종종 발견되지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좀처럼 지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 하다. 즉 국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부모모니터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을 뿐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결과를 국내에서 검증해 보고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여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 나유미와 임연진(2003)은 이를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고 구속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므로 부모가 규율을 세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논쟁점 중 하나는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성차이다. 자녀의 의미가 가족의 후계자나 노후 부양자로서가 아니라 애정 어린 양육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나 태도의 차이가 상당부분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일상 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잔존해 있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문제행동, 사이버비행 등 부적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다(박나래 외,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상문, 2016; Jacobson & Crockett, 2000;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는 결과와 이와 반대로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박현선, 이상균, 2008; 손보영 외, 2012; 서봉언, 김경식, 2015; 정병삼, 2010a; Struin et al., 2015)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다(조혜정, 윤명숙, 2010; Kerr, Stattin, & Burk, 2010)는 연구결과도 있다. 부적응뿐 아니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정병삼(2010b)은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준호와 박현정(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 즉 자녀가 혼자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호 경험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반해 손보영 외(2012)는 부모모니터링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남녀 성차는 없다고 보고하여 보다 면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자녀의 삶과 발달적 적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적응(김광혁, 차유림, 2007; 이중섭, 이용교, 2009), 자존감(이미리, 2005), 삶의 만족도(박성희, 최은영, 2016) 등에 있어 불리하다는 연구들과 더 높은 수준의 비행(윤우석, 2011; Bjerk, 2007; Rekker et al., 2015), 그리고 더 높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점수를 나타낸다(김은미, 정화음, 2006; 김지혜, 정익중, 2010)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 맞벌이 여부는 빈곤과는 달리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견되어, 모 취업의 긍정적 관점이 지지되기도 하고(이상록, 2009; Vander Ven, Cullen, Carrozza, & Wright, 2001). 부정적 관점이 지지되기도 하는(이수정, 2014; Crouter et al., 1990; Jacobson & Crockett, 2000)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학업이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고(김지혜, 정익중), 모 취업여부에 따라 모니터링의 문제행동 억제효과가 다르다(Jacobson & Crockett, 2000)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연간소득과 부모의 맞벌이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강력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칫 청소년기 자율성의 발달과 대치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또한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국내 연구결과들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론들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니터링 효과의 성차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전국표본을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에 입학한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 전반에 걸친 부모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에 청소년의 성별이 조절변수로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중1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은 이때가 통상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과거 아동기 때 모니터링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의 발달(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전화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모니터링과 청소년 자녀의 발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웰빙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비행, 자존감, 삶의 만족도라고 한 Kazdin(1993), Millstein, Petersen과 Nightingale(1994)의 견해에 따라 이 세 가지 변수들을 청소년의 발달적 지표 변수로 선정하였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업과 학교생활이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학교적응도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온 데 반해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들어 관심을 끌기 시작한 영역으로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모두 5가지 변수를 청소년 자녀의 발달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tterson, & Dishion, 1985). 이는 부모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의 위험행동을 예견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여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애정과 관심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다양한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임순선, 한상철, 2012). 그런데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초점을 청소년

의 긍정적 발달이나 적응적 행동에 맞추기 보다는 부적응적 결과에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Everri, Mancini & Fruggeri, 2015). 이것은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초창기 연구가 품행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추적, 그리고 규칙 설정과 준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Patterson, & Dishion, 1985). 이후 부모 모니터링과 자녀의 비행 및 부적응 행동 간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쏟아졌고, 부모양육행동에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가 모니터링이라는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박나래 외, 2015; 박현선, 이상균, 2008; 손보영 외, 2012; 서봉언, 김정식,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Jacobson & Crockett, 2000; Laird et al., 2003).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문제 역시 부모의 모니터링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양육행동과 함께 모니터링은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의존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김지혜, 2012; 유평수, 2010;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박주나와 전종설(2013)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 점수가 낮아지며, 부모의 감독은 휴대전화중독을 설명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다.

자녀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긍정적 결과를 촉진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한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지아, 김영희, 2015; 임선아, 2014;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장신재, 양혜원, 2007; Keijsers, Frijns, Branje, & Meeus, 2009), 종단연구에서도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좌현숙, 2012).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정병삼, 2010b; Parker & Benson, 2004), 부모가 자녀의 외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때 자녀는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얻게 되며 이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니터링이 자존감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은 일반청

소년뿐만 아니라 비행경험 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임선아, 2014), 비교문화적으로 볼 때에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비아시아권 사회보다 강하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Kagitcibasit, 1996; 박성희, 최은영, 2016에서 재인용).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고(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가 해마다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미, 전성희, 유미숙(2010)는 부모의 모니터링, 즉, 청소년 자녀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며 단속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점검하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모모니터링은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안정된 틀 안에서 자율성을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높은 부모모니터링은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왔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손보영 외, 2012; 조성희, 박소영, 2015).

2. 부모모니터링 효과에 있어서 성차

오늘날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나 태도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일상생활상의 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잔존해 있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Bumpus, Crouter와 McHale(2001)은 청소년기, 특히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성전형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발달시기로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따르도록 하는 압력이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초기 청소년기의 젠더강화(gender intensification of early adolescence)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모는 아들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더 세밀하게 하고 보다 보호적인 경향을 띤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모니터링의 정도와 효과는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혼재해 있다. 먼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이준호와 박현정(2012)은 부모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 즉 자녀가 혼자 집에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호 경험이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자기보호 경험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증가시켜 자기학습 통제능력을 감소시켰으나, 여학생의 자기보호 경험은 방과 후 여가시간을 감소시켜 자기학습 통제능력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라는 같은 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이로 인한 영향에도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또한 성별에 따라 부모모니터링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병삼(2010b)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청소년집단에 비해 여자 청소년집단에서 더 유의미하게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남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외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해 줄 때 안정적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삶의 만족도 역시 부모모니터링이 잘 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인숙(2012)은 남학생은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큰 반면에 여학생은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여학생의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교사관계가 모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접적인 지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모니터링 관련 연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들이다.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비행참여율이 더 높은 남자청소년에게 더 강하다는 결과들이 다수 발견된다(박나래 외,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상문, 2016; Cottrell et al., 2007; Jacobson & Crockett, 2000; Kincaid, Jones, Sterrett & McKee, 2012; Laird et al., 2003).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병삼(2010a)의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의 일탈행동 억제효과가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는 여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훈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모의 훈육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부모모니터링이 비행 또래의 영향력을 낮춤으로써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에 있어서(박현선, 이상균, 2008), 모니터링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삶의 만족도로 가는 인과경로의 유의성에 있어서(손보영 외, 2012), 그리고 부모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효과에 있어서(윤지은, 최미경, 2004) 오직 여학생에게만 그 유의성이 검증된 바 있다. 한편 부모의 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 성차가 없다(Kerr, Stattin & Burk, 2010)거나 휴대전화의존 점수를 낮추는 효과에 있어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밝힌(박주나, 전종철, 2013) 연구들도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상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비행 및 휴대전화의존도 등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이에 성별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남학생 1,098명(52.5%), 여학생 994명(47.5%)을 포함한 총 2,09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여 활용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부모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장소), 무엇을 하는지(내용), 몇 시에 귀가하는지(귀가시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를 측정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결과 해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 변환 후 사용하였다. 문항 신뢰도(Cronbach' s α)는 .754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4개 변인이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교우관계의 하위문항 중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는 측정모형검정 결과 요인부하량 수치가 .171로, 적정기준이라 볼 수 있는 .4(김계수, 2010)보다 현격히 낮아 삭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변환하였으며, 예시문항과 문항 신뢰도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적응 문항 신뢰도

변인명	문항수	예시문항	신뢰도
학습활동	5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782
학교규칙	5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824
교우관계	4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716
교사관계	5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850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척도를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하위문항 중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문항은 Rosenberg(1965)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이자영 외, 2009). 본 연구의 측정모형검정 결과에서도 요인부하량 수

치가 .033으로 기준치인 .4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김계수, 2010),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총 9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변환하였으며, 자존감 변인의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38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측정변수가 많아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문항을 3개씩 묶어 문항합산을 실시하였다. 문항합산은 구조모형을 검증할 때, 측정지표가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들을 묶어 합산하거나 평균을 구해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조현철, 강석후, 2007; 홍세희, 정송, 201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변환하였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37로 나타났다.

비행

비행은 연간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들 중 위법행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인 지위비행으로 분류되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조아미, 임영식, 2009) 4문항을 사용하였다. 비행행동 경험 여부에 따라 지난 1년 간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1, 경험한 적이 없으면 0으로 리코딩하여 합산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499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도는 이시형 외(2002)의 청소년 휴대전화이용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등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결과 해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을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895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도 또한 측정변수가 많아 3개의 묶음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문항합산을 실시하였다.

성별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SPSS 19.0,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니터링, 학교생활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그리고 휴대전화의존도의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들 중, 문항이 많은 변수의 경우 모형의 간명화를 위해 문항합산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모형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기본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교생활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그리고 휴대전화의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중심화, 상호작용 모형 개발의 순서를 따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기본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에서는 가구연간소득과 맞벌이여부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만족도, 비행,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여섯째, 상호작용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을 자유도 값으로 나눈 표준카이자승치(χ^2/df),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뜻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을 고려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차에 대한 t 값 및 x^2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니터링은 장소, 내용, 시간에 관하여 남녀 학생 모두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적응은 교사관계에서만 남학생이 더 높은 적응수준을 보 고했다($t=2.708$, $p<0.01$).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자존감: $t=5.300$, 6.235 , 5.591 , $p<0.001$; 삶의 만족도: $t=8.668$, 9.633 , 8.923 , $p<0.001$), 비행 경험은 흡연과 음주 경험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흡연: $x^2=30.042$, $p<0.001$; 음주: $x^2=6.376$, $p<0.05$). 휴대전화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의 일반적 경향

잠재변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t or x^2
				남학생	여학생	
모니터링	장소	1	4	3.44(.67)	3.48(.61)	-1.492
	내용	1	4	3.37(.67)	3.37(.66)	-0.107
	시간	1	4	3.08(.78)	3.08(.72)	-0.032
학교적응	학습활동	5	20	14.42(2.88)	14.24(2.74)	1.487
	학교규칙	5	20	15.04(2.84)	15.08(2.50)	-0.367
	교우관계	4	16	12.59(2.03)	12.56(1.74)	0.429
	교사관계	5	20	14.84(3.28)	14.45(3.20)	2.708**
자존감	자존감1	3	12	9.67(1.77)	9.26(1.76)	5.300***
	자존감2	3	12	9.65(1.66)	9.20(1.66)	6.235***
	자존감3	3	12	9.76(1.61)	9.37(1.56)	5.591***
삶의 만족도	만족도1	1	4	3.44(0.62)	3.20(0.66)	8.668***
	만족도2	1	4	3.03(0.81)	2.69(0.82)	9.633***
	만족도3	1	4	3.39(0.65)	3.13(0.69)	8.923***
비행	흡연	0	1	0.06(0.24)	0.02(0.12)	30.042***
	음주	0	1	0.05(0.22)	0.03(0.17)	6.376*
	무단결석	0	1	0.02(0.14)	0.02(0.14)	.089
	가출	0	1	0.02(0.16)	0.01(0.11)	3.686
휴대전화 의존도	의존도1	2	8	4.76(1.49)	5.23(1.51)	-7.087***
	의존도2	3	12	6.58(2.36)	7.42(2.33)	-7.955***
	의존도3	2	8	3.65(1.60)	3.78(1.58)	-1.829

*** $p < .001$ ** $p < .01$ * $p < .05$

2.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이 측정모형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 측정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4 이하(김계수, 2010)로 적합하지 않은 2문항(교우관계4번, 자존감8번)을 제거한 뒤 모형적합도는 표준카이자승치가 6.706, TLI가 .857, CFI가 .875, RMSEA가 .04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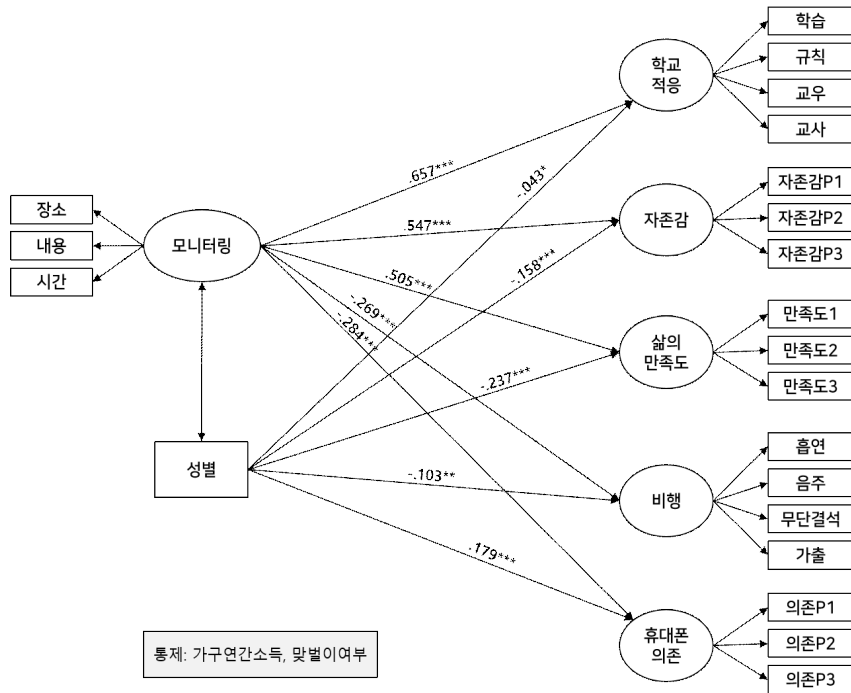
2) 기본모형 검증

상호작용 모형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기본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기본모형의 적합도는 표준카이자승치가 9.564, TLI가 .872, CFI가 .903, RMSEA가 .060으로 나타나 대체로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기본모형 검증 결과 모니터링 수준은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비행과 휴대전화의존도는 낮아졌다. 성별이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수준이 높았고, 휴대전화의존도는 낮았다.

〈표 3〉 기본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t
학교적응	←	모니터링	2.985	.657	.125	23.916***
자존감	←	모니터링	1.731	.547	.078	22.179***
삶의만족도	←	모니터링	.603	.505	.029	20.491***
비행	←	모니터링	-.047	-.269	.007	-7.124***
휴대전화의존도	←	모니터링	-.784	-.284	.069	-11.315***
학교적응	←	성별	-.179	-.043	.087	-2.065*
자존감	←	성별	-.455	-.158	.059	-7.652***
삶의만족도	←	성별	-.258	-.237	.023	-11.244***
비행	←	성별	-.017	-.103	.005	-3.370***
휴대전화의존도	←	성별	.450	.179	.056	7.993***

*** $p < .001$ ** $p < .01$ * $p < .05$



χ^2/df 9.564 TLI .872 CFI .903 RMSEA .060

<그림 1> 기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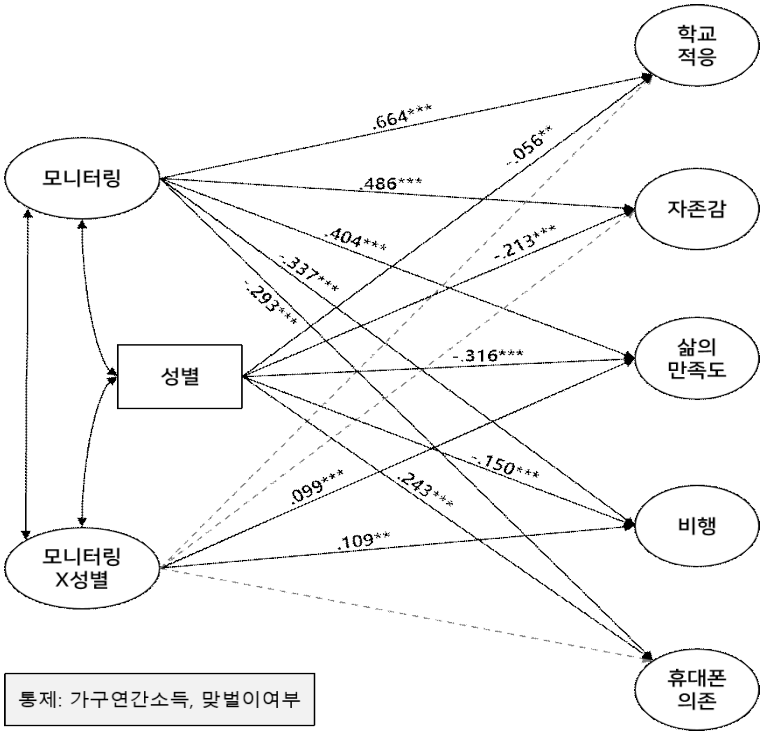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후, 상호작용 모형을 분석하였다. 홍세희, 정송(2014)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평균중심화된 X(독립변수; 모니터링)의 절편은 모두 0으로 제약하였으며, 잠재변수인 X와 Z(조절변수; 성별)의 평균을 0으로 제약하고 XZ(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의 평균과 X와 Z 사이의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분석결과는 각각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표준 카이자승치가 12.645, TLI가 .831, CFI가 .871, RMSEA가 .070으로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모형적합도 기준에서 볼 때 괜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삶의 만족도와 비행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삶의만족도: $\beta = .099$, $p < 0.001$; 비행: $\beta = .109$, $p < 0.05$)가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과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호작용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	t
학교적응	←	모니터링	3.684	.664	.226	16.955***
자존감	←	모니터링	1.908	.486	.137	13.955***
삶의만족도	←	모니터링	.605	.404	.050	12.166***
비행	←	모니터링	-.076	-.337	.011	-6.778***
휴대전화의존도	←	모니터링	-1.005	-.293	.116	-8.675***
학교적응	←	성별	-.169	-.056	.063	-2.674**
자존감	←	성별	-.449	-.213	.043	-10.336***
삶의만족도	←	성별	-.255	-.316	.017	-15.190***
비행	←	성별	-.018	-.150	.004	-4.798***
휴대전화의존도	←	성별	.448	.243	.041	10.898***
학교적응	←	모니터링×성별	-.408	-.051	.247	-1.656
자존감	←	모니터링×성별	.276	.048	.168	1.648
삶의만족도	←	모니터링×성별	.216	.099	.064	3.374***
비행	←	모니터링×성별	.036	.109	.014	2.503*
휴대전화의존도	←	모니터링×성별	.149	.030	.157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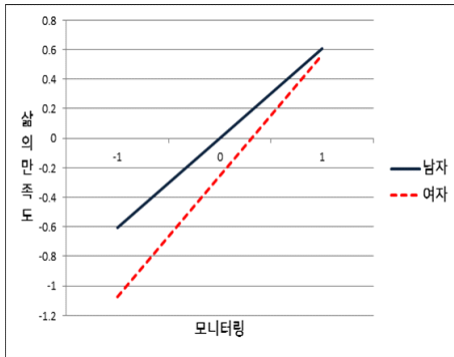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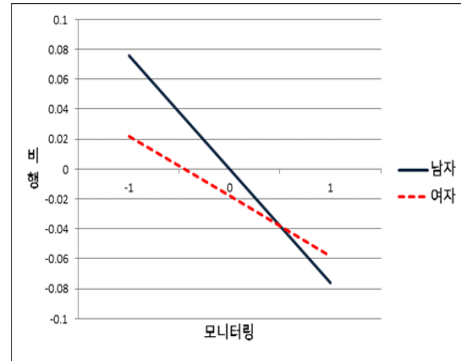
χ^2/df 12.645 TLI .831 CFI .871 RMSEA .070

〈그림 2〉 상호작용모형

모니터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는 그림 3, 4와 같다. 남녀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이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의 비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모니터링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 모니터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모니터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V. 결론 및 논의

부모모니터링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강력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자칫 청소년기 자율성의 발달과 대치되거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여겨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고, 연구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1 학생들의 발달 전반에 걸친 부모모니터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여기에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모니터링은 중1 학생들의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 비행, 휴대폰의존도 등 발달 전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부적응적 결과는 억제하고 긍정적 발달은 촉진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김용석, 1999; 김지혜, 정익중, 2010; 박나래 외, 2015;

손보영 외, 2012; 이상균, 2008; 조운주, 2013;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Kerr, Stattin, & Burk,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모니터링이 여러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 및 성별과 모니터링간 상호작용항, 그리고 통제변수(가구연간소득, 맞벌이 여부)를 모두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매우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모니터링이 자녀에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들(Stattin & Kerr, 2000; Seligman, 1991)과는 달리 국내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부모모니터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을 뿐 부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흔치 않은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한국에서는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민감한 시기이자 자율성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여 자녀의 삶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반발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발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자원이자 보호요인으로 인식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애착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단골 메뉴 외에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기술 향상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한 프로그램으로는 ImPact(Informed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Li, Stanton, Galbraith, Burns, Cottrell, & Pack, 2002). 이는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모모니터링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비디오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청한 후 이에 대한 토론과 특정 삽화 부분을 역할놀이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디오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가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장면, 청소년들끼리 토론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비행이나 위험한 성행동 점수에 있어 부모 보고 점수와 자녀 보고 점수 간 일치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조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가족 체크-업(FCU: Family Check-Up) 프로그램은 3회기 단기 개입으로, 1회기 가족면담, 2회기 전문가에 의한 부모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마지막 3회기 가족 관리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강화 면담 기법을 활용하는 피드백 세션으로 이루어진다(Dishion, Nelson, & Kavanagh, 2003).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군 비행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이 아닌 개별적 방식으로 적용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모니터링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자녀에게서 약물사용 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상담 및 가족생활 교육 현장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모니터링은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중요한 부모양육 기술로서 임상적 가치를 지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녀의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비행에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삶의만족도: $\beta = .099$, $p < 0.001$; 비행: $\beta = .109$, $p < 0.05$).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여학생의 기울기가 남학생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모니터링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삶의 만족도로 가는 인과경로가 오직 여학생에게만 의미 있게 나타났던 손보영 외(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관심과 돌봄에 대해 여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부모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수록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선행연구(정병삼, 2010a)와 연결해서 볼 때,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점수가 대체로 낮은 여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부모모니터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에 있어서도 모니터링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이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모니터링 수준에 따른 비행 감소 기울기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니터링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오히려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남자 청소년에게 더 강하다(박나래 외, 2015; 안혜원, 이재연, 2009; 이상문, 2016; Cottrell et al., 2007; Jacobson & Crockett, 2000; Kincaid, Jones, Sterrett & McKee, 2012; Laird et al., 200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Lippold, McHale, Davis와 Kossek(2015)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의 기회가 될 만한 맥락적 조건에 더 쉽게 반응하고, 사회통제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외적 통제에 더 민감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맥락적 조건이자 외적 통제로서 부모모니터링이 잘 작동한다면 남자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조절효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모니터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방법 모색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한 조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모니터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정서적인 관심과 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아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과 행동 외에 평상시의 감정적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된다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또래와 더 많이 접촉하고 비행또래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차별화된 노출 및 차별화된 취약성이론(Walters, 2014)과 남자 청소년들은 사회심리학적으로 또래의 비행문화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Schulte, Ramo & Brown, 2009)는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모모니터링의 초점을 비행또래와의 상호작용 내용과 빈도에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자녀의 또래접촉을 낮추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Keijsers와 동료들(2012)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친구교제에 대해 잘못된 통제를 가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비행또래 접촉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비행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평소 자녀들의 또래 친구들을 잘 알고 친구의 부모와도 접촉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자녀가 누구를 사귀어야 할지 누구와는 거리를 뒀야 할지 선택의 문제에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주의를 상기시켰다.

이상에서 밝힌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국 단위의 확률표집에 근거한 패널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시간 차원을 횡단적으로 고찰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부모모니터링은 연구 수행 시까지 총 2차례밖에 측정되지 않아 추후 변인의 변화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부모모니터링을 다각도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부모모니터링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개념화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부모모니터링의 다양한 방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서 아는 것인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의 친구, 친구의 부모 등을 상대로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행동과 교제에 대한 규칙을 미리 설정해 놓고 적용함으로써 자녀의 자유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기는 초기, 중기, 후기 각 단계별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 한정되어 향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더 많은 맥락 변수 및 관련변수들이 모니터링을 주제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의 강도와 종류, 그리고 모니터링이 행해지는 맥락은 물론이고 가족 내의 관계의 질이나 분위기, 자녀의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부모 모니터링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국 한나래 출판사.
- 김광혁, 차유림(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투자)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pp.29-51.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pp.163-182.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 **청소년발달지표 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용석(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12, 103-127.
- 김은미, 정화음(200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3(2), 125~161.
- 김지혜(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p.97-120.
- 김지혜, 정익중(2010). 빈곤은 인터넷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부모의 지도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pp.29-56.
- 나유미, 임연진(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박나래, 오수경, 진미선, 백수정, 정익중(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악성 댓글 작성과 음란사이트 열람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2), 39-54.
- 박성희, 최은영(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5, 53-83.
- 박주나, 전종설(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

- 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0, 127-160.
- 박현선, 이상균(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서봉언, 김경식(2015). 남녀 집단에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과 부모감독의 중단관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1, 88-109.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신미, 전성희, 유미숙(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안혜원, 이재연(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염유식, 김정미, 이승원(2016). **2016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방정환재단.
- 유지아, 김영희(2015). 부모행동이 청소년의 심리·행동문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2(4), 25-47.
- 유평수(2010). 주학생의 학교성적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식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33-51.
- 윤연정, 이미숙, 전춘애(2011).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113-126.
- 윤우석(201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85, 137-172.
- 윤지은,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37-251.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2-293.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의 조절된

-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121-151.
- 이상록(2009). 모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6(4), 133-161.
- 이상문(2016). 부모의 통제상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비행유형의 차이. **한국범죄학**, 10(3), 243-273.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2008).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 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수정(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 및 위험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8(2), 203-212.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외(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자영, 남숙경, 최보영, 이지희, 박양민, 이상민(2009). 문화차에 의해 발생한 심리검사 문항의 번역오류: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8번 문항의 수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45-1358.
- 이준호, 박현정(2012).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 방과 후 자기보호가 초등학생의 자기학습 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3(3), 27-59.
- 이중섭, 이용교 (2009).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7), 1-27.
- 임선아(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매개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청소년학연구**, 21(9), 79-100.
- 임순선, 한상철(2012). 부모의 휴대폰 사용을 통한 청소년 자녀의 생활모니터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9(1), 89-109.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2), 431-451.
- 장신재, 양혜원(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정병삼(2010a).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 종단적 억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8(2), 149-165.
- 정병삼(2010b).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조아미, 임영식(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37-154.
- 조운주(2013).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과 학습행동 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1(2), 253-251.
- 조현철, 강석후(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뭉름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7(3), 133-153.
- 조혜정, 윤명숙(2010). 부모감독과 청소년 음주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259-285.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최인숙(2012). 학생의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차 검증. **교육과학연구**, 43(3), 105-129.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정송(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Bumpus, M. F., Crouter, A. C., & McHale, S. M. (2001). Parental autonomy granting during adolescence: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7(2), 163-173.
- Cottrell, L., Yu, S., Liu, H., Deveaux, L., Lunn, S., Bain, R. M., & Stanton, B. (2007). Gender-based model comparisons of maternal values, monitoring, communication, and early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 Adolescent Health*, 41(4), 371-379.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
-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61-75.
- Dishion, T. J., Nelson, S. E., & Kavanagh, K. (2003). The family check-up with high-risk young adolescents: Preventing early-onset substance use by parent monitoring. *Behavior Therapy*, 34(4), 553-571.
- Everri, M., Mancini, T., & Fruggeri, L. (2015) Family Functioning,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Familiar Responsibility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0), 3058-3066.
- Foltz, R. (2011). Parental monitoring or an Invasion of privacy?.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20(3), 41-43.
- Hawk, S.T., Hale, W. W., Raaijmakers, Q.A.W., & Meeus, W. (2008). Adolescents' perceptions of privacy invasion in reaction to parental solicitation and contr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4), 583-60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obson, K. C., & Crockett, L. J. (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65-97.
- Kagitcibasit, C.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akihara, F., & Tilton-Weaver, L. (2009). Adolescents' interpretations of parental control: Differentiated by domain and types of control. *Child*

- Development*, 80(6), 1722-1738.
-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
- Keijsers, L., Branje, S., Schwartz, S., Frijns, T., Koot, H. M., & Meeus, W. (2012). Forbidden friends as forbidden fruit: Parental supervision of friendships, contact with deviant pee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83(2), 651-666.
- Keijsers, L., Frijns, T., Branje, S. J., & Meeus, W. (2009). Developmental links of adolescent disclosure, parental solicitation, and control with delinquency: Moderation by parental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314-1327.
- Kerr, M., Stattin, H., & Burk. W. J. (2010). A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39-64.
- Kincaid, C., Jones, D. J., Sterrett, E., & McKee, L. (2012). A review of parenting 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3), 177-188.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ee, J., & Randolph, K. A. (2015).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aggressive behavior among you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 cross-nation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5, 1-9.
- Li, X., Stanton, B., Galbraith, J., Burns, J., Cottrell, L., & Pack, R. (2002). Parental monitoring intervention: practice makes perfect.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94(5), 364.
- Lippold, M. A., McHale, S. M., Davis, K. D., & Kossek, E. E. (2015). Day-to-day inconsistency in parent knowledge: Links with youth health and parents' stres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3), 293-299.
- Millstein, S. G., Petersen, A. C., & Nightingale, E. O. (1994). *Promoting the*

- health of adolescents: New direc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ary, NC: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er, J., & Benson, M.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9*(155), pp.519-30.
- Patterson, G. R., & Dishion, T. J. (1985).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1), 63-7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ligman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Strunin, L., Díaz-Martínez, L. R., Díaz-Martínez, A., Heeren, T., Winter, M., Kuranz, Solís-Torres, C. et al. (2015). Parental monitoring and family relations: associations with drinking patterns among male and female Mexican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51*, 143-151.
- Schulte, M. T., Ramo, D., & Brown, S. A. (2009).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alcohol use and drinking progression among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6), 535-547.
- Vander Ven, T. M., Cullen, F. T., Carrozza, M. A., & Wright, J. P. (2001). Home Alone: The Impact of Maternal Employment on Delinquency. *Social Problems*, *48*(2), 236-257.
- Walters, G. D. (2014). Sex as a moderator and perceived peer pressure as a mediator of the externalizing-delinquency relationship: A test of gendered pathways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3), 299-305.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 1592-1610.

-Abstract-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

Choi, Younshil · Bae, Heeboo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al monitoring over the whole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s' gender using the data of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an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monitor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such as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linquency, and mobile phone dependency. Secon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life satisfaction and delinquency.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was lower in female adolescents than in 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level of monitoring,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life, but the slope of female students was steep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And delinquency score was higher for male adolescents than for fe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level of monitoring, the lower the score of delinquency, but the slope of male students was steep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Even when the level of monitoring was very high, it was found that boys' delinquency was lower than that of girl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 Key words: Monitoring,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Delinquency, Mobile Phone Dependency, Moderating Effect of Gender